【연구논문】

“나성에 가면”: 로스앤젤레스 한인과 자영업

이찬행
(성균관대학교)

1. 서론

백인들의 서부 이주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던 19세기 중반부터 로스앤젤레스는 백인 중심의 도시였다. 하지만 1965년 이민법이 개정되어 제3세계 이주민들이 대거 유입되면서 로스앤젤레스는 인구 구성에 있어 극적인 변화를 경험하기 시작하였다. 천사의 피부색이 급격하게 변하는 현실을 두고 『타임』(*Time*)지는 급기야 1983년에 작성된 특집 기사에서 로스앤젤레스가 아시아와 라틴아메리카 출신의 “이국적인 다중(exotic multitudes)”에 의해 침략을 당하면서 “에스닉 폭발”을 겪고 있다고 선언할 정도였다.[1] 『타임』지의 침략 보도가 있고 5년이 흐른 뒤 한때 갱 활동을 하다가 흑인 민족주의자로 거듭난 새니카 샤쿼(Sanyika Shakur)는 자신이 살던 흑인 빈민가 사우스센트럴 로스앤젤레스 곳곳에 “한인들이 소유한 주유소와 리커 스토가 들어섰으며 멕시코계 행상인들은 마치 마약을 팔듯이 길모퉁이에서 오렌지를 팔고 있었다”라고 회상하였는데[2] 여

1) Kurt Andersen, “New Ellis Island,” *Time* (June 13, 1983), 18.
2) Sanyika Shakur, *Monster: The Autobiography of an L.A. Gang Member* (New

기에서도 알 수 있듯이 로스앤젤레스의 인종 변화는 흑인 밀집 지역이라고 예외는 아니었다.

1965년 이민법 개정 이후 로스앤젤레스는 멕시코계를 포함한 라티노와 한인 이민자들에게 가장 인기가 있는 행선지였는데 그 이유는 20세기 초반부터 일부 한인과 라티노가 이곳에 정착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 성장도 꾸준히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가난한 농민 및 노동계급 출신이 많았던 라티노 이민자들과는 달리 1965년 이후 미국으로 이주한 한인 이민자들은 대부분 도시에 거주하던 중산층 출신이라는 점에서 구별되었다.[3] 그렇지만 많은 이민자들이 그러하듯이 이들 한인 이민자들 역시 신분 상승의 기회를 좇아 미국 이민을 택하였는데 로스앤젤레스, 즉 나성(羅城)은 이들의 아메리칸 드림을 상징하는 공간이었다. 1978년에 발표된 세샘트리오의 "나성에 가면"이라는 제목의 곡이 이야기하듯 그곳은 "꽃모자"를 쓴 사람들이 "예쁜 차를 타고 행복을 찾아" 다니는 낙원으로 인식되었다.[4] 하지만 기대와는 달리 한인 이민자들은 언어 장벽과 문화적 차이 등으로 인해 미국 사회와 주류 노동시장에서 다양한 차별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어려운 과정을 거쳐 미국 이민을 갔건만 자신들의 기대에 걸맞은 일자리를 찾는 데 실패한 한인들은 결국 로스앤젤레스 다운타운으로부터 서쪽으로 약 5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코리아타운과 다운타운 바로 아래에 위치한 흑인 밀집 지역 사우스센트럴 로스앤젤레스에서 자영

York: Atlantic Monthly Press, 1993), 360.

3) Timothy J. Henderson, *Beyond Borders: A History of Mexican Migration to the United States* (New York: Wiley-Blackwell, 2011), 90-117; David E. Lopez, Eric Popkin, and Edward Telles, "Central Americans: At the Bottom, Struggling to Get Ahead," *Ethnic Los Angeles*, ed. Roger Waldinger and Mehdi Bozorgmehr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1996), 279-304; Claudia Dorrington, "Salvadoran Immigrants and Refugees: Demographic and Socioeconomic Profiles," *Asian and Latino Immigrants in a Restructuring Economy: The Metamorphosis of Southern California*, ed. Marta Lopez-Garza and David R. Diaz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1), 393-424.

4) 세샘트리오, 『세샘트리오 노래모음집』 (서울: 힛트레코드사, 1978).

업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소규모 자본으로 시작할 수 있었던 자영업은 결코 화려한 아메리칸 드림과는 어울리지 않지만 최소한 안정적인 정착의 느낌을 한인들에게 제공해주었다는 점에서, 그야말로 “씁쓸하면서도 달콤한(bittersweet)”[5] 선택이었다.

본 논문은 로스앤젤레스 한인들의 미국 이민 과정을 검토하면서 이들이 왜 자영업에 진출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떠한 재원을 동원하였는지를 규명하는 글이다. 한인의 자영업 진출에 관한 기존의 많은 연구는 이른바 “불이익 테제(disadvantage thesis)”를 근간으로 이루어졌다. 이는 한인들이 미국 사회에서 겪을 수밖에 없는 여러 불이익으로 말미암아 자영업이라는 길을 택하게 되었다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6] “불이익 테제”와 조응하는 또 다른 가정은 한인들이 자신들의 역경을 이겨내기 위해 외부의 도움을 받지 않고 근면과 절약을 통해서 그리고 ‘계’와 같은 주로 내적인 재원을 동원하여 자영업 분야에서 성공을 일구어냈다는 것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가정들은 ‘열심히 일하고 상부상조하여 성공한 아시아계 이민자 대(對) 게으르고 가난하면서 정부에 요구만 해대는 흑인’이라는 대립 구조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빈곤을 개인적 책임의 문제로 환원하면서 일종의 이민자 성공 신화를 재생산하는 담론적 기제와 다름

---

5) In-Jin Yoon, *On My Own: Korean Businesses and Race Relations in America*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7), 6.

6) 이른바 “불이익 테제”를 위해서는 다음 연구들을 참고할 수 있다. Pyong Gap Min, *Caught in the Middle: Korean Communities in New York and Los Angeles*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6), 4; Pyong Gap Min, “From White-Collar Occupations to Small Business: Korean Immigrants’ Occupational Adjustment,” *Sociological Quarterly* 25.3 (1984): 350; Yoon, *On My Own*, 5; Kyeyoung Park, *The Korean American Dream: Immigrants and Small Business in New York City*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97), 29. 한편, 한인 의료 전문인들이 경험한 불이익과 여기에 대한 이들의 대응을 위해서는 다음 연구들을 참고하면 된다. Edna Bonacich, “The Social Costs of Immigrant Entrepreneurship,” *Amerasia Journal* 14.1 (1988): 122; Eui Hang Shin and Kyung-Sup Chang, “Peripherization of Immigrant Professionals: Korean Physicians in the United States,”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22.4 (1988): 622.

없다는 비판적 인식을 기반으로 로스앤젤레스 한인들의 미국 정착 과정을 재구성하고자 한다.

2. 도시 중산층의 미국 이민

미국으로 이민을 간 첫 번째 한국인들은 20세기 초반 하와이 플랜테이션에서 일하기 위해 모집된 대략 7천5백 명의 노동자들이었다.[7] 하지만 제1차 이민 물결 이후 반 세기가량 한국인들의 미국 이민은 사실상 중단되다시피 했는데, 이는 1907년 미일신사협정,[8] 한국인의 귀화를 인정하지 않았던 1921년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9] 그리고 한국인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은 아니지만 미국 시민권을 받을 수 없는 자들, 특히 아시아인들의 이민을 금지시켰던 1924년 미국 이민법이 함께 빚은 결과였다. 독립 이후에도 한국인들은 귀화 자격이 없는 외국인으로 간주되었고 따라서 미국 이민은 거의 불가능했다.

막혔던 미국 이민 물꼬는 한국전쟁에 의해 터진 것으로 보인다. 약 50만 명 이상의 미군이 한국전쟁에 참전했는데 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미국 정부는 1990년대 소규모 감축이 있기 전까지 매해 평균 4만 명가량의 미군을 남한에 주둔시켰다. 1965년 이후 미국으로 이민을 간 한국인들이

---

7) Wayne Patterson, *The Ilse: First-Generation Korean Immigrants in Hawaii, 1903-1973*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and Center for Korean Studies, 2000), 1.

8) 20세기 초반 미국 서부에서 반일 감정이 고조되자 1907년 미국과 일본은 미일신사협정(Gentlemen's Agreement)을 체결하기에 이른다. 이 협정에 의거하여 일본 정부는 일본인 노동자와 한국인 노동자에게 여권 발급을 중단하였다.

9)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Western District of Missouri, "Petition of Easurk Emsen Charr," *Federal Reporter* 273 (1921): 207-214. 한인 차의석에 대한 국내 연구를 위해서는 다음을 참고할 수 있다. Chanhaeng Lee, 「White Citizenship and Asian Americans' Subalternity: Takao Ozawa, Bhagat Singh Thind, and Easurk Emsen Charr」, 『동국사학』 59 (2015): 663-86.

주로 도시 출신의 고학력자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주한 미군과 한국 여성 사이의 국제결혼은 전쟁고아 입양과 함께 한국전쟁 이후 최근까지 한국인 이민을 위한 통로 가운데 하나로 기능하였다.[10] 예컨대 한인 학자 허원무의 연구에 의하면 1971년-1973년 사이 한국인 이민자의 무려 62.2퍼센트가 여성이었고 이들 여성 가운데 40퍼센트는 20대였는데 대부분 미군의 아내라는 신분으로 이민을 간 경우였다.[11] 또한 김은영의 연구에 따르면 이렇게 미국인과 결혼한 한국 여성 1명의 가족 초청을 계기로 하여 결국 무려 100명에 가까운 한국인 친인척들이 연쇄적으로 미국 이민을 떠날 수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12]

대부분 하층 계급 출신이었던 미군 아내와 전쟁고아 이민과는 달리 한국인의 본격적인 해외 지역 이주는 미국 자본이 한국에 들어오면서 시작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약 20년 동안 미국은 전례 없는 호황을 누렸으나 국제 경쟁의 심화로 말미암아 1960년대 중반부터 자본의 수익률은 점점 추락하고 있었다. 몇몇 기업체들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한다거나 신기술을 개발함으로써 생산성을 증가시켜 위기를 극복하고자 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충성스러운 노동자들을 저버리면서 산업 설비를 세금이 낮

---

10) Pyong Gap Min, “Korean Americans,” *Asian Americans: Contemporary Trends and Issues*, ed. Pyong Gap Min (Thousand Oaks, CA: Sage, 1995), 202; Sucheng Chan, *Asian Americans: An Interpretive History* (Boston: Twayne, 1991), 140; Ji-Yeon Yuh, “Imagined Community: Sisterhood and Resistance among Korean Military Brides in America, 1950-1996,” *Asian/Pacific Islander American Women: A Historical Anthology*, ed. Shirley Hune and Gail M. Nomura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2003), 222-223; Illsoo Kim, “Korea and East Asia: Premigration Factors and U.S. Immigration Policy,” *Pacific Bridges: The New Immigration from Asia and the Pacific Islands*, ed. James T. Fawcett and Benjamin V. Carino (Staten Islands, NY: Center for Migration Studies, 1987), 334.

11) Won Moo Hurh, *Comparative Study of Korean Immigrants in the United States: A Typological Approach* (San Francisco: R and E Research Associates, 1977), 44.

12) Eun-Young Kim, “Assimilation Patterns of Koreans in the United States,” *Center for Migration Studies Special Issues* 5.2 (1987): 147.

고 규제가 허술한 교외 지역으로 옮긴다거나 낮은 임금과 세금 인센티브를 좇아 산업체를 아예 해외로 이전하는 “탈산업화” 전략을 택하였다. 풍부한 저임금 노동력과 억압적인 노동 환경을 유지하고 있었던 한국은 미국 기업 입장에서 보았을 때 “탈산업화” 전략의 좋은 선택지였다.[13] 한편, 미국 자본은 박정희 정권의 경제 성장 정책과 맞물리면서 농업 위주의 한국 사회를 수출 지향적인 경제를 기본으로 하는 산업 자본주의 사회로 변모시키고 있었다. 이에 따라 많은 수의 농민들은 생산수단으로부터 분리되어 임금노동자가 될 수밖에 없었다. 한국 노동력의 프롤레타리아트화라고 부를 수 있는 이 과정에 의해 농촌으로부터 도시로 대규모 내부 이주(internal migration)가 발생하였고 알려진 바에 의하면 1960년부터 1975년 사이에 무려 7백만 명의 농민들이 도시에서 일자리를 찾기 위해 농촌을 떠났다. 같은 시기 인구 5만 명 이상의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인구의 비율이 28퍼센트에서 52퍼센트로 급증했는데 이는 이촌향도의 현실을 잘 보여주는 수치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도시 거주민들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급속한 도시 팽창은 인구과잉, 공해, 주택난, 취업난 등 많은 문제를 야기하는 주범이었다. 도시화가 낳은 각종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그리고 동시에 부족했던 외화를 확보하고자 한국 정부는 결국 1962년 해외이주법을 제정하였는데, 그 결과 1974년까지 1만7천 명의 한국인들이 광부와 간호사 자격으로 서독행을 택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인들의 국제 이주(international migration)를 위한 길은 비로소 열리게 되었다.[14]

---

13) 예컨대 1979년과 1982년 사이 미국 노동자의 시간당 평균 임금은 11.79달러에 달했으나 한국 노동자의 시간당 평균 임금은 1.22달러에 불과했다. Barry Bluestone and Bennett Harrison, *The Deindustrialization of America: Plant Closings, Community Abandonment, and the Dismantling of Basic Industry* (New York: Basic Books, 1982), 15-16, 130; Bennett Harrison and Barry Bluestone, *The Great U-Turn: Corporate Restructuring and the Polarizing of America* (New York: Basic Books, 1988), 11-13, 31-32.

14) Yoon, *On My Own*, 62, 81; Ronald Takaki, *Strangers from a Different Shore: A*

서독으로 향하던 한국인들에게 1965년 미국 이민법 개정은 국제 이주 목적지를 변경할 기대하지 않았던 기회였다. 민권운동이 활발하던 시기에 통과된 1965년 이민법은 무엇보다도 이전 이민법들이 지니고 있었던 인종주의적인 측면을 제거하고 대신에 전문가를 위한 직업 이민과 가족 초청에 의한 이민이라는 두 가지 주요 이민 경로를 설정하였다.[15] 하지만 1965년 이민법이 제정된 배경을 살펴보면 이 법안이 원래 아시아인들이 아니라 남동부 유럽인들의 이민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되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법안을 제정한 당사자들은 1965년 이전에 미국에 살고 있는 아시아 사람들의 규모가 작기 때문에 가족 초청 이민이라는 경로를 사용할 아시아인들은 적을 것이며 따라서 이민법 개정이 아시아인의 이민을 용이하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가정했다. 이에 반해 남동부 유럽인들은 1965년 이전에도 이미 많은 수가 미국에 거주하고 있었기에 가족 초청 이민은 주로 이들 유럽계 백인들이 사용할 것이라고 전제한 것이다. 미국의 대표적 보수 단체인 재향군인회(American Legion)조차도 1965년 이민법 개정에 반대하지 않았는데 이는 비록 1965년 이민법이 1924년 이민법의 강력한 반(反)이민 조항, 즉 “시민권 자격이 없는” 아시아인들의

History of Asian Americans (Boston: Little, Brown and Company, 1998 [1989]), 438; Kim, “Korea and East Asia,” 336-338. 1960년대 이후 한국의 노동 실태를 위해서는 다음 연구를 참고할 수 있다. 장미현, 「1960-70년대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시행과 산재(産災)노동자의 대응」, 『사림』 50 (2014): 95-127. 한편 한국인들의 독일 이주를 위해서는 다음 연구들을 참고할 수 있다. 나혜심, 「국경을 가로지르는 과정으로서의 이주 — 노동이주자에 초점을 두고」, 『사림』 47 (2014): 293-326; 나혜심, 「파독 한인여성 이주노동자의 역사」, 『서양사론』 100 (2009): 255-85.

15) Bill Ong Hing, *Making and Remaking Asian America through Immigration Policy, 1850-1990*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3), 19-38; Sucheng Chan, “Asian American Struggles for Civil,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Rights,” *Asian American Studies Now: A Critical Reader*, ed. Jean Yu-wen Shen Wu and Thomas C. Chen (New Brunswick: Rutgers University Press, 2010), 217-221; Jodi Kim, *Ends of Empire: Asian American Critique and the Cold War*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2010), 19-20; 오영인, 「미국 자유주의와 백인 미국 만들기 — 20세기 전반 시민권 정책을 중심으로」, 『사림』 47 (2014): 265-91.

이민을 금지시켰던 조항을 삭제한다 하더라도 전체 이민자들의 인종 구성에는 커다란 변화가 없으리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심지어 법무부 장관이었던 로버트 케네디도 이민법이 개정되면 첫해에만 아시아계 이민자들의 숫자가 5천 명가량 늘고 이후에는 더 이상의 증가가 없을 것이라고 예측했다.[16)]

이처럼 1965년 이민법은 아시아 사람들에 대한 노골적인 차별 조항을 지니고 있지는 않았으나 실질적으로는 배제의 코드에 의해 조직화되었다. 하지만 1965년 이민법 개정을 지지했던 미국 재향군인회와 케네디 법무장관의 기대와 예측과는 반대로 1965년 이후 아시아 출신 이민자 숫자는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아시아인들은 우선 전문가를 위한 이민 경로를 택해 미국에 입국했고 이후 시민권을 취득한 다음에 가족을 초청하는 방식을 적극 이용했다. 해외로 진출할 기회를 찾고 있던 한국인들 역시 개정된 이민법의 두 경로를 활용하여 미국행 비행기에 오르기 시작했다. 그 결과 1965년 이민법이 실제 효력을 개시한 1968년부터 한국인 이민자 수는 급증하기 시작하여 1969년에만 6천 명이 미국으로 이민을 갔다. 이 수치는 꾸준히 증가하여 1971년에는 1만4천 명에 달했고 1971년-1980년 사이 한국은 아시아에서 필리핀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이민자를 보내는 국가로 부상하게 되었다.[17)]

한국전쟁 이후 첫 번째 이민 물결을 구성했던 미군 아내와 전쟁고아와는 달리 1965년 이민법 개정 이후 미국행을 택한 한인 이민자들은 도시 중산층 출신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왜 그랬을까? 미국 자본의 유입과 한국의 산업화와 도시화 문제가 한국인들로 하여금 이민을 결심하게 만들

---

16) David M. Reimers, *Still the Golden Door: The Third World Comes to America*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5), 75-77.

17) Min, *Caught in the Middle*, 28; Hing, *Making and Remaking*, 95; United States Commission on Civil Rights, *The Economic Status of Americans of Asian Descent: An Exploratory Investigation* (Washington, DC: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88), 21.

었기에 오늘날 멕시코인들의 미국 이민에서 알 수 있듯이 가장 심각한 취약 계층일수록, 즉 산업화와 도시화에 가장 많은 타격을 입은 집단일수록 이민을 택하였으리라고 가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렇지만 미국으로 이민을 가는 티켓은 모든 사람들이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었다. 1965년 개정 이민법이 전문가 이민을 위한 직업 관련 조항을 제시하고 있기에 미국행 이민 티켓은 결국 의사, 간호사, 기술자 그리고 그들의 가족 등에게 제한되기 십상이었다. 물론 이들 중산층 전문가 집단들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에서 많은 타격을 입었다. 특히 교육 분야에 대한 미국의 지원과 사회적·경제적 신분 상승을 위해 교육에 투자하려는 한국인들의 열망이 결합하면서 낳은 고등교육 확대는 중산층이라 하더라도 자신이 받은 교육에 부합하는 일자리를 구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현실을 만들었다.[18] 하지만 취약 계층과는 달리 도시의 중산층 전문가 집단들은 미국의 1965년 개정 이민법이 지정한 직업군에 속하였으며 또한 미국 이민을 단행할 최소한의 경제적 여력도 보유하고 있었다. 여기에 더해 미군 주둔에 의해 퍼지기 시작했던 “미국 판타지(American fantasy)” 혹은 “미국병(American fever)”은 이들의 이민 열망을 강하게 부추겼다.[19] 비록 미군정 이후 문학과 마당극 등에서 미국에 반대하는 정서가 조금씩 표출되긴 했으나 1980년대 후반 민주화 운동에서 드러났던 반미주의 단계까지는 이르지 않은 점도 많은 수의 한국인들로 하여금 미국을 “민주적이고 자유롭고 근대적인” 국가로 상상하게 만드는 데 일조했다.[20]

---

18) Yoon, *On My Own*, 64-67.

19) Illsoo Kim, *New Urban Immigrants: The Korean Community in New York*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1), 59; Park, *The Korean American Dream*, 29.

20) Namhee Lee, *The Making of Minjung: Democracy and the Politics of Representation in South Korea*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2007), 112. 문학과 마당극에서 표출된 반미 정서를 위해서는 다음 연구를 참고할 수 있다. Jae-Bong Lee, “Cultural Representation of Anti-Americanism: The Negative Images of the United States in

3. “씁쓸하면서도 달콤한” 자영업

미국으로 이민을 간다는 것은 “성공의 패스포트”로 간주되었다. 하지만 도시의 중산층만이 이러한 패스포트를 거머쥘 수 있었다. 이른바 “엘리트 이주”라고 불리는 과정은 바로 이들 도시 출신의 중산층 이민자들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21] 다시 말해 그들은 가난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미국 이민을 택한 것은 아니었다. 또한 1980년 미국 인구 통계조사에 기반한 김현숙과 민병갑의 연구에 의하면 1965년 이후 미국에 간 한국 이민자들의 교육 수준은 상당히 높았다. 예컨대 25세 이상으로서 4년제 대학을 졸업한 비율이 모든 이민자들의 경우 22.2퍼센트, 미국인의 경우 16.2퍼센트였지만 한국인 이민자들의 경우에는 그 수치가 31.6퍼센트로 높게 나타났다.[22]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인 이민자들은 단순히 빈곤 탈피를 위해서가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으로 더 많은 기회를 찾기 위해 이민을 택했다고 봐야할 것이다. 푸른 하늘, “꽃 모자,” “예쁜 차,” “행복”으로 상징되는 로스앤젤레스는 “성공의 패스포트”를 쥔 이들에게 더없이 어울리는 곳이었으리라.

하지만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도시 출신의 고학력 중산층 한인들은 자신들의 교육 자본이 미국에서 일자리를 구하는 데 그다지 소용이 없다는 사실과 맞닥뜨려야만 했다. 그 이유는 한국 학교가 미국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왕왕 있었기 때문이다. 한인들에게는 또한 언어 장벽도 생

South Korean Literature and Arts, 1945-1994,” Diss., University of Hawaii, 1994.

21) Hurh, *Comparative Study*, 44; Edward T. Chang, “New Urban Crisis: Korean-African American Relations,” *Koreans in the Hood: Conflict with African Americans*, ed. Kwang Chung Kim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99), 56; Won Moo Hurh, *Assimilation of the Korean Minority in the United States* (Elkins Park, PA: Philip Jaisohn Memorial Foundation, 1977), 13; Min, *Caught in the Middle*, 31.

22) Hyun Sook Kim and Pyong Gap Min, “The Post-1965 Korean Immigrants: Their Characteristics and Settlement Patterns,” *Korea Journal of Population and Development* 21.2 (1992): 132.

각보다 높았다. 필리핀계와 인도계와는 달리 한인들의 영어는 낮은 단계인 경우가 많았는데 이러한 점은 취업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었고 설령 일자리를 구한다고 하더라도 소득 수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심지어 한국에서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이민을 간 사람들도 영어로 된 시험을 통과해야만 했기에 의료 분야에 취업을 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설령 이 시험을 통과하여 미국 의사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미국의 의료 보건 시스템에서 주변화되어 예컨대 자신들이 원하던 신경정신과 대신에 영어가 덜 필요한 마취과 의사가 되어야만 하는 경우도 제법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설상가상으로 미국의 관습에 익숙하지 않은 점도 한인들의 취업 기회를 제한하는 데 한몫을 하였다.

이러한 불이익은 결국 한인들로 하여금 작은 규모의 자영업을 택하도록 강제했다. 한인들에게 “안정”은 중요한 사안이었다. 뉴욕 한인사회를 연구한 박계영이 주장하듯이 안정은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열망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야말로 이민자가 미국에 정착하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23] 여러 제한과 불이익에 봉착한 한인들에게 작지만 자기 가게를 갖는다는 것은 이러한 안정을 취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선택 가운데 하나였다. 다양한 장벽으로 원하던 일자리를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던 로스앤젤레스 한인들 역시 한국에서는 중산층의 삶을 살던 이들이 많았음에도 작은 규모의 자영업을 시작함으로써 미국에 정착하고자 했다. 자신이 받은 교육 수준에 부합하는 일자리를 얻지 못한 한인들은 오늘날의 코리아타운보다 약간 남쪽에 위치한 곳을 중심으로 다양한 가게를 열어 정착의 기반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1970년대 중반 한인들의 자영업체들이 늘어나면서 코리아타운 상업 지구는 크게 확장되었고 이후 로스앤젤레스 한인들의 인구도 빠르게 증가하였다.[24] 오늘날의 코리아타운 상업 지구는 로스앤젤레스를 동서로 관통하고 있는 윌셔 블러버드를 중심으로

23) Park, *The Korean American Dream*, 3, 201.
24) 『한국일보』, 1983년 8월 30일.

형성되어 있으나 1970년대와 19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남쪽에 있는 올림픽 블러버드와 피코 블러버드였다. 이 도로들을 따라 수백 개의 한인 자영업체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었다.

<올림픽 블러버드 한인 업체들과 로스앤젤레스 다운타운>

위 사진은 2007년 9월 15일 '제34회 LA 한국의 날' 축제 때 촬영되었다. 로스앤젤레스를 동서로 횡단하는 올림픽 블러버드가 시를 남북으로 관통하는 8가 및 웨스턴 애비뉴와 만나는 지점 인근에 한인 업체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사진 중앙 뒤편의 높은 건물들이 모여 있는 곳이 로스앤젤레스 다운타운 지역이다(촬영: 저자).

자영업은 한인들에게 안정감을 부여했으나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다. 자영업에 종사하는 한인들은 장시간 일해야만 했으며 높은 범죄율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경우도 비일비재했다. 심지어 운영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배우자와 아이들의 노동력까지 동원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25] 리커 스토를 운영하고 있던 어느 한 한인 상인은 자신의 가게를

“창살 없는 감옥”에 비유하고 “아침 7시에 가게를 열고 밤 11시 반에 문을 닫습니다. 가게를 제때 열기 위해 5시 반에는 일어나야 하죠. 아침을 먹을 시간도 없고 점심도 저녁도 이 리커 스토 안에서 먹어야만 합니다. 여기는 제 집이예요. 저는 이곳에 살고 있답니다. 제가 여기서 행복하냐고 물으신 건가요?”라고 말하면서 자영업의 고충을 토로하기도 했다.[26]

<25세-64세 취업자 가운데 자영업 종사자 비율>
조사 지역: 로스앤젤레스, 오렌지카운티, 샌버나디노카운티, 리버사이드, 벤츄라카운티

출신 국가 및 인종	1970년	1980년	1990년
엘살바도르 FB	3.9	3.8	7.0
과테칼라 FB	없음	3.3	7.8
멕시코 NB	4.7	5.3	6.3
멕시코 FB	4.8	4.0	6.7
일본 NB	18.6	15.1	10.9
중국 NB	20.5	10.7	11.2
중국 FB	11.5	16.5	16.6
필리핀 FB	3.4	3.5	5.2
한국 FB	**3.6**	**24.8**	**34.6**
흑인 NB	6.3	4.4	5.8
아르메니아 FB	없음	24.3	27.2
이란 FB	없음	20.9	27.8
러시아 NB	없음	22.9	23.4
기타 백인 NB	10.1	12.0	13.3

(FB: 외국 태생, NB: 미국 태생)

출처: Ivan Light and Elizabeth Roach, “Self-Employment: Mobility Ladder or Economic Lifeboat?” *Ethnic Los Angeles*, 199.

25) 한인 이민자 아내들의 경제적 기여는 종종 가정에서의 젠더 관계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 연구를 참고할 수 있다. In-Sook Lim, “Korean Immigrant Women’s Challenge to Gender Inequality at Home: The Interplay of Economic Resources, Gender, and Family,” *Gender and Society* 11.1 (1997); Park, *The Korean American Dream*, 113-138.

26) Edward T. Chang, “New Urban Crisis: Korean-Black Conflicts in Los Angeles,” Diss.,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1990, 122.

비록 고달픈 직종이었지만 자영업은 한인들의 생계를 해결해주었다. 작은 규모지만 자기 가게를 운영함으로써 한인들은 적지 않은 수입을 거둘 수 있었고 자녀들을 대학에 보낼 수도 있었다. 이런 점에서 도시 출신의 중산층 한인들의 이민 이야기는 대개 역경 극복이라는 극적인 성격이 강하다. 사실상 한인들의 경험은 이민자가 새로운 환경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만약 능동적 행위(agency)라는 개념이 "도전과 불확실함"에 대처하기 위해 해결책을 모색하는 능력으로 정의될 수 있다면,[27] 도시 중산층 출신 한인들의 이민이야말로 능동적 행위의 구체적인 증거일 수 있다. 자영업이라는 것은 여러 불이익을 받던 한인들에게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었다. 그 결과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1970년에서 1990년 사이 로스앤젤레스와 인근 지역 한인들의 자영업 종사 비율은 눈에 띄게 증가하였다. 1986년 5백 명의 한인들을 상대로 조사한 민병갑의 연구에 의하면 자영업 종사 비율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응답자의 무려 48퍼센트가 자영업을 한다고 답하였다.[28]

4. 자영업 진출의 내적/외적 요인

한인들은 미국으로 이민을 갈 때 이미 상당한 액수의 돈을 들고 간 것으로 전해진다. 이는 자영업을 운영하는 다른 인종 집단들에 비해 한인들의 평균 자기자본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가주한인상공회의소가 작성한 1977년 보고서에 따르면 새로운 사업체를 운영하고자 하는 한인들은

---

27) Mustafa Emirbayer and Ann Mische, "What Is Agency?"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03.4 (1998): 984.

28) Pyong Gap Min, "Korean Immigrants in Los Angeles," Paper presented at the Conference on California Immigrants in World Perspective,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1989-1990), 13, Retrieved April 21, 2008 from http://repositories.cdlib.org/issr/volume5/2; Pyong Gap Min, *Caught in the Middle*, 48.

자기자본으로 평균 17,860달러를 투자했다. 오직 26퍼센트만이 자기자본이 1만 달러 미만이었다. 자기자본 규모는 이후 10년 동안 거의 두 배 증가했다. 티모시 베이츠의 연구에 의하면 흑인들의 평균 자기자본은 9,253달러에 불과했으나 한인들의 평균 자기자본은 무려 33,831달러로 급증한 것이다.[29] 개인적인 자본 이외에도 고학력자가 많았던 한인들은 교육 자본도 소유하고 있었다. 비록 한인들은 주류 노동시장에서 자신들의 교육 자본에 상응하는 일자리를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지만 이들의 교육 자본은 한인 자영업 성장에 도움을 주기 마련이었다. 베이츠가 분석하듯이 교육 수준은 마이너리티가 운영하는 자영업의 수명과 성공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 가운데 하나였다.[30]

한인들은 또한 사업체 운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계(rotating credit associations)를 이용하기도 했다. 계는 목돈이 필요한 한인들 사이에 광범위하게 활용되어 한국계 은행 가운데 가장 큰 한미은행은 계와 유사한 금융 상품을 내놓을 정도였다.[31] 한국계 은행은 대출을 통해서도 한인 자영업의 성장을 적극 도왔다. 1974년에서 1991년 사이 총 7개의 한국계 은행이 로스앤젤레스에서 영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들 대부분은 한인 인구가 급증하던 1980년대 세워졌다. 미국의 주류 은행 및 다른 인종 집단의 은행들과는 달리 한국계 은행들은 사업체 대출에 중점을 둠으로써 이민을 간 지 오래되지 않아 충분한 신용이 없었던 한인들에게 창업 자금

29) Hyung Ki Chin, “The Survey of Business and Management of Korean Firms in Southern California,” *The Survey of Socio-Economic Status of Korean Residents in Southern California*, ed. Byung Wook Yoon (Los Angeles: Korean Chamber of Commerce of Southern California, 1977), 24; Timothy Bates, “An Analysis of Korean-Immigrant-Owned Small-Business Start-Ups with Comparisons to African-American- and Nonminority-Owned Firms,” *Urban Affairs Quarterly* 30.2 (1994): 245.

30) Bates, “An Analysis,” 242.

31) Ivan Light, Im Jung Kwuon, and Deng Zhong, “Korean Rotating Credit Associations in Los Angeles,” *Amerasia Journal* 16.1 (1990): 40-41; *Los Angeles Times*, October 5, 1988.

을 지원해주는 역할을 했다. 한국계 은행은 심지어 한인들이 한국에 있는 재산을 담보로 사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한인 자영업의 성장을 가능케 했다.[32)]

대부분의 한인들은 이민을 가기 이전부터 자영업 환경에 많이 노출되어 있었는데 이것 역시 한인들의 자영업 진출을 자극하였다. 1960년대 이후 한국의 산업화와 함께 임금노동자의 숫자는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비농업 부문 자영업자 규모는 급격하게 줄어들지 않았다. 농업 부문의 해체는 토지에서 분리된 자들이 농촌 지역으로부터 도시로 대거 이동하는 현상을 낳았고 이렇게 도시로 밀려든 사람들 대부분은 임금노동자가 되었으나 자본에 포섭되지 못한 상당수는 생계를 위해 도시에서 작은 규모의 자영업을 택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이와 동시에 도시 산업체의 저임금과 가혹한 노동 환경은 임금노동자의 탈프롤레타리아트화를 촉진했는데 이렇게 임금노동자 신분으로부터 벗어난 사람들도 소자본으로 시작할 수 있는 자영업을 대안으로 선택했기 때문이다.[33)] 그 결과 1970년대와 1980년대 작은 규모의 자영업을 운영한다는 것은 한국에서 가장 흔한 직업 가운데 하나로 부상하게 되었다. 한인들은 미국으로 이민을 가기 전에 이미 이러한 자영업 환경을 직·간접적으로 충분히 경험하였던 것이고 이는 다양한 불이익에 처해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던 한인들에게 "그럴듯한 대안"을 제공했다고 볼 수 있다.[34)]

---

32) Hyeon-Hyo Ahn and Jang-Pyo Hong, "The Evolution of Korean Ethnic Banks in California,"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of Regional Studies* 7.2 (1999): 107-111; Hyeon-Hyo Ahn and Yun-Sun Chung, "The Financial Development of Korean Americans: A Comparison of Korean and Chinese American Banks in California,"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of Regional Geographers* 12.1 (2006): 155, 160; Tamara K. Nopper, "Beyond the Bootstrap: How Korean Banks and U.S. Government Institutions Contribute to Korean Immigrant Entrepreneurship in the United States," Diss., Temple University, 2008, 116.

33) 서관모, 「현대 한국사회의 계급구성 - 쁘띠부르조아지의 추세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의 계급연구 1』, 김진균 외 지음 (서울: 한울, 1985), 121, 125.

34) Yoon, *On My Own*, 28-29; Kim and Min, "The Post-1965 Korean Immigrants," 134.

한인들의 자영업 진출을 자극했던 마지막 내적 요인으로 사적 소유 제도를 기반으로 하는 자유주의적 경제 이데올로기도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35] 박정희는 1961년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하면서 주요 은행들의 국유화를 감행했을 뿐만 아니라 국가 소유 산업체들을 육성함으로써 경제에 깊숙이 개입했는데 이러한 경제 전략들은 자유주의적 경제 모델과는 거리가 있었다.[36] 하지만 미국으로부터 군사적·경제적 원조를 받을 필요성의 증대는 점점 박정희 정권으로 하여금 경제에 대해 탈규제를 실시하도록 압박하기 시작했다.[37] 마침 자유주의 경제 이데올로기는 미국 정부가 공산권과 대결하기 위한 “냉전 시기의 발사체(cold war projectiles)”로도 활용되고 있었는데, 이는 저개발 국가들이 미국으로부터 원조를 받고자 한다면 바로 이 냉전의 이데올로기적 무기를 수용하도록 압력을 받았기 때문이다.[38] 나아가 존 리가 주장하듯이 남로당과의 연관이라는 과거를

35) 미국에서 자유주의 경제 이데올로기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기업인들에 의해 “미국을 지적으로 재정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적극적으로 확산되었다. 1930년대 뉴딜 정치인들과 노동운동의 결합이 재현될 상황을 두려워했던 기업인들은 노동과 자본의 조화 그리고 개인적인 주도성을 강조하는 정치 언어를 통해 자유주의 경제 이데올로기의 핵심인 자유 기업(free enterprise) 담론을 전파하였다. 냉전이 도래하면서 기업인들은 반공주의 정서를 자극하면서 개인적 자유를 더욱 강조하기에 이른다. Elizabeth A. Fones-Wolf, *Selling Free Enterprise: The Business Assault on Labor and Liberalism, 1945-60* (Urbana and Chicago: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1994), 15-17, 161-62, 285-86; Wendy L. Wall, *Inventing the “American Way”: The Politics of Consensus from the New Deal to the Civil Rights Movement*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8), 48-49.

36) Alice H. Amsden, *Asia’s Next Giant: South Korea and Late Industrializat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2), 16.

37) Chung-in Moon and Byung-joon Jun, “Modernization Strategy: Ideas and Influences,” *The Park Chung Hee Era: The Transformation of South Korea*, ed. Byung-Kook Kim and Ezra F. Vogel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2011), 135-37; Young-chol Cho, “The Chaebol Regime and the Developmental Coalition of Domination,” *Developmental Dictatorship and the Park Chung-Hee Era: The Shaping of Modernity in the Republic of Korea*, ed. Byeong-cheon Lee (Paramus, NJ: Homa & Sekey, 2006), 115.

38) Cynthia Lee Henthorn, *From Submarines to Suburbs: Selling a Better America, 1939-1959* (Athens, OH: Ohio University Press, 2006), 238; Raghbir S. Basi,

지니고 있었던 박정희는 자유주의 경제 이데올로기를 옹호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인식하였다.[39] 이런 과정을 거쳐 본격적으로 한국에 재수입된[40] 자유주의 경제 이데올로기는 개인의 진취성과 자립 같은 요소를 핵심으로 지니고 있었기에 박정희가 강조하던 자조, 근면 담론과 쉽게 결합할 수 있었으며[41] 자기가 살던 농촌에서 뿌리가 뽑힌 자들(the uprooted), 탈프롤레타리아트화된 자들, 그리고 한인들처럼 여러 제약과 불이익으로 일자리를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던 자들이 비록 작은 규모일지언정 자영업을 통해 사회·경제적 신분 상승이라는 환상을 좇도록 유인했다.[42]

한인 자영업에 대한 기존 연구는 이상에서 살펴보았던 내적인 재원 활용에만 주목하는 경향이 있었다. 김광정과 김신은 한인 이민자들은 미국 정부로부터 어떠한 도움도 받지 않았으며 대부분 자기 자신의 재원들을 동원하여 혹은 필요한 경우 다른 한인의 도움을 받아 자영업을 운영했다고 강조했다. 에드워드 장은 더 나아가 한인 상인들이 미국 정부로부터 보조를 받았다는 것은 신화나 마찬가지라고 강하게 주장하면서 자영업에 종사하는 한인들이 부유하게 된 것은 순전히 내적 자본을 동원한 결과라고 파악했다.[43] 이와 같은 한인 학자들의 이해는 결국 일종의 자조 담론

"Role of the 'Free Enterprise' Ideology in Less-Developed Countries," *Journal of Economics and Sociology* 26.2 (1967): 173.

39) John Lie, *Han Unbound: The Political Economy of South Korea*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8), 90.

40) 여기서 "재수입"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사적 소유 제도와 자유주의적 경제 이데올로기가 이미 해방 이후 한국 사회에서 낯선 존재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41) Hyung-A Kim, *Korea's Development under Park Chung Hee: Rapid Industrialization, 1961-79* (New York: Routledge Curzon, 2004), 137.

42) 1970년대 한국에서의 소규모 자영업과 사회적 신분 상승에 대해서는 다음 연구를 참고할 수 있다. Hagen Koo, "Small Entrepreneurship in a Developing Society: Patterns of Labor Absorption and Social Mobility," *Social Forces* 54.4 (1976): 775-87.

43) Kwang Chung Kim and Shin Kim, "The Multiracial Nature of Los Angeles Unrest in 1992," *Koreans in the Hood*, 30; Chang, "New Urban Crisis," in

에 의해 구조화된 것으로서 그것의 핵심 내용은 극심한 차별과 불이익에도 불구하고 한인들은 미국 정부에 공적인 지원을 요청하지 않고 대신에 건실한 노동 윤리를 갖고 자기가 속한 한인 커뮤니티의 재원들만을 이용하여 궁극적으로 아메리칸 드림을 성취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상과 같은 한인 학자들의 주장은 미국 인종 이데올로기의 한 축을 형성하고 있는 모델 마이너리티 신화—즉, 미국의 인종 차별을 비판하면서 평등을 요구하는 흑인 및 라티노와 부지런하고 성실하다고 칭찬받는 아시아계 이민자를 서로 대립시킴으로써 흑인과 라티노의 정치적 요구가 지니는 정당성을 우회적으로 박탈하는 신화—를 반복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민을 간 국가에서 겪을 수밖에 없었던 장벽을 넘어서기 위해 한인들이 내적인 재원을 활용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일이겠지만 한인들의 자영업 진출에는 외부 재원 이용이라는 계기가 존재했다. 자영업 진출은 이러한 외적 재원이 없었다면 쉽지 않았을 것이다. 사실상 한인들은 미국 정부의 도움을 요청하는 데 결코 주저하지 않았다. 이는 일상적인 생활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일로서 정부가 보조하는 아파트에 살면서 무료 의료 서비스를 받고 있는 노인들도 많았으며 로스앤젤레스의 어느 한 사회복지사는 한인 이민자들이 웰페어, 즉 복지 수령에 매우 “적극적”이라고 밝힌 바 있다.[44] 보나시츠, 라이트, 그리고 옹의 공동 연구에 의하면 한인 단체들과 언론들은 한인 커뮤니티 외부의 재원들과 공공 기관에 대한 한인들의 접근을 적극 돕기도 했다.[45]

Koreans in the Hood, 52; Edward T. Chang and Jeannette Diaz-Veizades, *Ethnic Peace in the American City: Building Community in Los Angeles and Beyond*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1999), 31.

44) *Koreatown* (January 21, 1980), K. W. (Kyung Won) Lee Papers, D-251, Department of Special Collections, University of California Library, Davis, California, Retrieved August 8, 2008 from the Online Archive of California.

45) Edna Bonacich, Ivan Light, and Charles Choy Wong, “Small Business among Koreans in Los Angeles,” 11-12, Retrieved November 13, 2008 from ERIC database.

김광정, 김신, 에드워드 장 등의 주장과는 달리 한인 자영업도 미국 정부 및 금융 기관의 지원을 통해 발달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미국 정부는 1965년 이민법 개정 직후에 투자자 면제 조항 설치를 통해 자영업 진출 예정자의 이민을 도왔다. 이 조항은 이민을 희망하는 자가 1965년 이민법이 애초에 제정한 두 가지 이민 자격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미국 사업체에 특정 액수를 투자할 수 있으면 이들이 반드시 노동허가증을 발급받을 필요가 없도록 했으며 나아가 이들의 영주권 취득을 용이하도록 도와주었다. 1976년 기준으로 미국 이민을 원하는 자가 4만 달러를 투자할 수 있으면 그의 신분은 "사업가이자 투자자"로 분류되어 이민 과정이 순탄하게 진행될 수 있었다. 게다가 미국 의회는 1981년에는 아예 사업가 및 투자자 신분 이민자의 수적 제한을 없애는 법안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이러한 조항들을 이용하여 1966년과 1975년 사이에 대략 2천6백 명의 한인들이 영주권을 취득했으며 1976년부터 1990년 사이에는 그 수치가 약 7천 명가량으로 증가하였다.[46)]

미국 정부의 법적인 지원 이외에도 한인들은 미국의 중소기업청(U.S.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으로부터 융자를 받아 자영업을 시작할 수 있었다. 1960년대 민권운동 직후 중소기업청의 융자는 흑인들의 경제적 상태를 개선하는 데 중점이 주어졌다. 흑인들은 1978년 카터 대통령이 미 공법 95-507에 서명하기 전까지 중소기업청 융자 수혜자들 가운데 다수를 구성하였다. 하지만 공법 95-507은 백인 여성 사업가와 같은, 인종적인 차원에서 볼 때 비-마이너리티들(non-minorities)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면서 중소기업청 융자 대상자 범위를 확장시켰고 이에 따라 흑인 사업가들에게 주어졌던 인종적 우선권은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 이

46) Ivan Light and Edna Bonacich, *Immigrant Entrepreneurs: Koreans in Los Angeles, 1965-1982*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1 [1988]), 404-405, 419; Bonacich, "The Social Costs," 121; In-Jin Yoon, *The Social Origins of Korean Immigration to the United States from 1965 to the Present* (Honolulu: East-West Center, 1993), 31-33; Yoon, *On My Own*, 82-83.

러한 변화와 함께 또 다른 마이너리티 인종인 아시아계 미국인들이 중소기업청 융자의 주요 대상자로 부각하는 일이 벌어졌다. 구체적인 수치를 보자면 1980년 마이너리티 인종을 위해 할당된 중소기업청 융자의 38퍼센트를 흑인들이 차지했고 아시아계 미국인들이 지원받은 금액은 고작 18퍼센트에 불과했다. 하지만 10년 후에 실시된 조사에 따르면 흑인 융자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17퍼센트로 급감했고 반대로 아시아계 미국인들이 중소기업청 마이너리티 대상 융자금의 55퍼센트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청은 어떠한 마이너리티 집단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융자금을 지원받았는지는 발표하지 않기에 한인들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의 정확한 규모를 알 도리는 없다. 하지만 중소기업청 융자 수혜자 가운데 아시아계 미국인이 증가하고 있다는 전반적인 경향으로부터 한인들 역시 미국 정부로부터의 융자금을 점점 많이 받고 있었다고 추정하는 것은 무리가 아닐 것이다.[47] 이를 반영하듯이, 비록 비공식적인 자료에 기반한 조사이긴 하지만, 데이비드 S. 김 등의 연구에 의하면 중소기업청 융자는 한인들에게 초기 사업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중요한 통로로 인식되고 있었다. 이들의 연구에 따르면 로스앤젤레스 한인들은 1971년과 1974년 사이에 총 101건의 중소기업청 융자를 받았으며 총 금액은 1천만 달러를 상회했다. 이를 다시 업종을 기준으로 분류하자면 리커 스토가 총 33건으로 2백8십만 달러를 지원받아 가장 커다란 몫을 차지하고 있었다.[48]

---

47) Kilolo Kijakazi, *African-American Economic Development and Small Business Ownership* (New York: Garland, 1997), 28-29; Mark Eddy, “Minority and Women-Owned Business Programs of the Federal Government,” *Affirmative Action: Catalyst or Albatross?*, ed. S. N. Colamery (Commack, NY: Nova Science, 1998), 147-149; Nopper, “Beyond the Bootstrap,” 66-67.

48) David S. Kim and Charles Choy Wong, “Business Development in Koreatown, Los Angeles,” *The Korean Diaspora: Historical and Sociological Studies of Korean Immigration and Assimilation in North America*, ed. Hyung-chan Kim (Santa Barbara, CA: ABC-Clio, 1977), 240-42. 한편 윤인진은 195명의 한인들을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에서 응답자 가운데 8퍼센트가 미국 중소기업청 융자를 이용

5. 결론

1977년 한인 업체를 대상으로 한 실태 조사에 의하면 한인들은 자영업 가운데서도 특히 소매업에 많이 진출한 것으로 보인다. 이 조사에 따르면 소매업은 한인 사업체의 45퍼센트에 육박하였고 한인 소매업은 로스앤젤레스카운티 전체 소매업의 2.74퍼센트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한인들의 인구가 로스앤젤레스카운티 전체 인구의 0.86퍼센트에 불과했음을 감안한다면, 이 수치는 한인들이 소매업과 같은 자영업에 얼마나 많이 몰렸는지를 짐작케 해주고도 남을 것이다. 한편 1965년 이후에야 본격적으로 이민을 올 수 있었던 한인들이 10년이 조금 지난 1970년대 후반에 이르러 로스앤젤레스카운티 전체 그로서리의 9.18퍼센트, 리커 스토의 4.59퍼센트를 운영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여러 소매업종 가운데 한인들이 특히 선호했던 분야는 청과물과 음료 및 주류를 판매하는 그로서리와 리커 스토였다.[49] 지역 주민, 특히 흑인 고객들과 자주 접촉하기에 갈등적인 환경을 낳기 십상인 그로서리와 리커 스토는 1980년대 내내 한인들에게 각광을 받았다. 로스앤젤레스에서 발행되고 있는 『한국일보』의 조사에 의하면 1986년 한 해에만 총 1,700개 이상의 한인 자영업체들이 생겼는데, 코리아타운과 인근 지역에서는 한인들이 그로서리와 리커 스토 이외의 다양한 업종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흑인 밀집 지역인 사우스 센트럴 로스앤젤레스를 비롯한 기타 지역에서는 그로서리와 리커 스토가

하여 사업 자금을 마련했고 7퍼센트가 계를 이용했다면서 한인들이 미국 정부 융자에 많이 의존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Yoon, *On My Own*, 142-45. 하지만 데이비드 S. 김 등의 연구에 의하면, 한인들이 중소기업청에서 받은 융자는 평균 102,660달러임에 반하여 계를 통해 조달한 금액은 평균 1만-3만 달러에 불과했다. 이는 비록 중소기업청 융자와 계를 이용한 한인 비율이 서로 비슷할지라도 한인들의 자영업에 기여하는 역할의 규모에 있어서는 커다란 차이가 있었음을 말해준다.

49) Edna Bonacich and Tae Hwan Jung, "A Portrait of Korean Small Business in Los Angeles: 1977," *Koreans in Los Angeles: Prospects and Promises*, ed. Eui-Young Yu, Earl H. Philips, and Eun Sik Yang (Los Angeles: Koryo Research Institute, 1982), 79-82, 88.

압도적으로 많았다.[50]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그로서리와 리커 스토가 대부분 현금 장사를 하기에 비교적 안정적이라는 점과 다른 업종과는 달리 영어가 사업체의 성공적인 운영에 그다지 관건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 있었던 것으로 『한국일보』는 보도하고 있다.[51] 여러 통계들을 종합해 볼 때 1977년 로스앤젤레스 한인 인구는 총 58,521명이었으며 한인들이 소유한 그로서리 및 리커 스토는 총 292군데였다. 한인들의 이민은 1980년대 꾸준히 증가하여 1990년 로스앤젤레스카운티 한인들은 총 145,431명이 되었으나 한인 그로서리 및 리커 스토 증가율은 이보다 훨씬 앞서 1990년 총 2,487군데로 폭증했다. 이는 로스앤젤레스카운티 전체 그로서리 및 리커 스토의 무려 39퍼센트를 한인들이 장악했음을 의미한다.[52]

이상의 통계에서 알 수 있듯이, 도시 중산층 출신의 한인들은 사회경제적 신분 상승을 위해 미국으로 이민을 떠났으나 소규모 자영업 운영, 그것도 위험스러운 상황으로 비화되기 쉬운 그로서리와 리커 스토 운영이라는 “씁쓸”한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대부분의 한인 학자들은 한인들의 이러한 자영업 진출을 “불이익 테제”를 통해 이해하며 이는 일반 한인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불이익 테제”의 주요 내용은 역경에 처한 한인들이 외부의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성공했다는 것이다. 본 논문은 한인들이 봉착해야만 했던 불이익과 이를 이겨내려는 한인들의 강한 의지를 부정하려는 것은 결코 아니다. 도시 중산층 출신이 많았던 한인 이민자들은 다른 이민자 집단들과 비교했을 때 고학력자 비율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언어 장벽과 문화적 차이 등으로 좌절할 위기에 처하자 자영업을 선택함으로써 자신들의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고자 했다. 소규모 자영업은 장시간 노동을 수반하기 마련이지만 한인들은 이를 참으면서 생계를 해결했고 자녀들에게 양질의 교육

50) 『한국일보』, 1987년 1월 3일.
51) 『한국일보』, 1986년 4월 23일.
52) Bonacich and Jung, “A Portrait,” 79-82; 『한국일보』, 1991년 6월 13일; Min, *Caught in the Middle*, 34.

의 제공할 수도 있었다. 한인들이 코리아타운과 사우스센트럴 로스앤젤레스 등에서 상권을 장악할 수 있었던 것은 불이익을 극복하려는 한인들의 능동적 행위가 있었기에 가능했을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한인들은 한국계 은행의 대출, 계, 이민 이전의 경험 등 내적인 재원들을 사용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 살펴보았듯이 한인들의 아메리칸 드림 성취는 미국 정부의 보조와 법적인 지원, 중소기업청의 융자 등 외적인 재원이 있었기에 가능했음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러한 점을 외면한 채, 불이익에 처한 한인들이 오로지 내적인 재원만을 동원하여 자영업 부문에서 성공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민자 성공 신화에 지나지 않는 것이며 나아가 근본적으로는 오늘날 미국 인종주의의 정치적 언어—한편으로는 1960년대 중반 민권운동 이후 경제적 평등과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에 대한 흑인들의 거센 요구에 대해 한인들을 비롯한 아시아계 이민자들을 모델로 치켜세우면서 국가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립하고 자조하는 모델 마이너리티를 본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정치적 언어, 다른 한편으로는 아시아계 이민자들처럼 열심히 노력하는 자들은 누구나 아메리칸 드림을 성취할 수 있기에 미국에는 신분상승을 가로막는 인종 차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정치적 언어—를 무비판적으로 내면화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53]

53) 모델 마이너리티 신화를 비롯한 오늘날 미국 인종주의에 대해서는 다음 연구를 참고할 수 있다. 이찬행, 「칼라 블라인드: 1960년대 중반 이후 미국의 자유주의적 인종주의에 관한 연구」, 『서양사론』 120 (2014): 149-181.

Works Cited

[국내문헌]

나혜심. 「국경을 가로지르는 과정으로서의 이주 ― 노동이주자에 초점을 두고」. 『사림』 47 (2014): 293-326.

_____. 「파독 한인여성 이주노동자의 역사」. 『서양사론』 100 (2009): 255-85.

서관모. 「현대 한국사회의 계급구성 ― 쁘띠부르조아지의 추세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의 계급연구 1』. 김진균 외 지음. 서울: 한울, 1985. 111-26.

세샘트리오. 『세샘트리오 노래모음집』. 서울: 힛트레코드사, 1978.

오영인. 「미국 자유주의와 백인 미국 만들기 ― 20세기 전반 시민권 정책을 중심으로」. 『사림』 47 (2014): 265-91.

이찬행. 「칼라 블라인드: 1960년대 중반 이후 미국의 자유주의적 인종주의에 관한 연구」. 『서양사론』 120 (2014): 149-81.

장미현. 「1960-70년대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시행과 산재(産災)노동자의 대응」. 『사림』 50 (2014): 95-127.

『한국일보』

Lee, Chanhaeng. 「White Citizenship and Asian Americans’ Subalternity: Takao Ozawa, Bhagat Singh Thind, and Easurk Emsen Charr」. 『동국사학』 59 (2015): 663-86.

[국외문헌]

Ahn, Hyeon-Hyo and Yun-Sun Chung. “The Financial Development of Korean Americans: A Comparison of Korean and Chinese American Banks in California.”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of Regional Geographers* 12.1 (2006): 154-71.

Ahn, Hyeon-Hyo and Jang-Pyo Hong. “The Evolution of Korean Ethnic Banks in California.”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of Regional Studies* 7.2 (1999): 93-115.

Amsden, Alice H. *Asia’s Next Giant: South Korea and Late Industrializat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2.

Andersen, Kurt. “New Ellis Island.” *Time* 13 Jun. 1983.

Basi, Raghbir S. "Role of the 'Free Enterprise' Ideology in Less-Developed Countries." *Journal of Economics and Sociology* 26.2 (1967): 179-88.

Bates, Timothy. "An Analysis of Korean-Immigrant-Owned Small-Business Start-Ups with Comparisons to African-American- and Nonminority-Owned Firms." *Urban Affairs Quarterly* 30.2 (1994): 227-48.

Bluestone, Barry and Bennett Harrison. *The Deindustrialization of America: Plant Closings, Community Abandonment, and the Dismantling of Basic Industry*. New York: Basic Books, 1982.

Bonacich, Edna. "The Social Costs of Immigrant Entrepreneurship." *Amerasia Journal* 14.1 (1988): 119-28.

Bonacich, Edna, Ivan Light, and Charles Choy Wong. "Small Business among Koreans in Los Angeles." Retrieved November 13, 2008 from ERIC database.

Bonacich, Edna and Tae Hwan Jung. "A Portrait of Korean Small Business in Los Angeles: 1977." *Koreans in Los Angeles: Prospects and Promises*. Ed. Eui-Young Yu, Earl H. Philips, and Eun Sik Yang. Los Angeles: Koryo Research Institute, 1982. 75-98.

Chan, Sucheng. "Asian American Struggles for Civil,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Rights." *Asian American Studies Now: A Critical Reader*. Ed. Jean Yu-wen Shen Wu and Thomas C. Chen. New Brunswick: Rutgers University Press, 2010. 213-38.

_____. *Asian Americans: An Interpretive History*. Boston: Twayne, 1991.

Chang, Edward T. and Jeannette Diaz-Veizades. *Ethnic Peace in the American City: Building Community in Los Angeles and Beyond*.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1999.

Chang, Edward T. "New Urban Crisis: Korean-African American Relations." *Koreans in the Hood: Conflict with African Americans*. Ed. Kwang Chung Kim.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99. 39-59.

_____. "New Urban Crisis: Korean-Black Conflicts in Los Angeles." Diss.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1990.

Cho, Young-chol. "The Chaebol Regime and the Developmental Coalition of Domination." *Developmental Dictatorship and the Park Chung-Hee Era: The Shaping of Modernity in the Republic of Korea*. Ed.

Byeong-cheon Lee. Paramus, NJ: Homa & Sekey, 2006. 108-33.

Chin, Hyung Ki. "The Survey of Business and Management of Korean Firms in Southern California." *The Survey of Socio-Economic Status of Korean Residents in Southern California*. Ed. Byung Wook Yoon. Los Angeles: Korean Chamber of Commerce of Southern California, 1977. 23-30.

Dorrington, Claudia. "Salvadoran Immigrants and Refugees: Demographic and Socioeconomic Profiles." *Asian and Latino Immigrants in a Restructuring Economy: The Metamorphosis of Southern California*. Ed. Marta Lopez-Garza and David R. Diaz.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1. 393-424.

Eddy, Mark. "Minority and Women-Owned Business Programs of the Federal Government." *Affirmative Action: Catalyst or Albatross?*. Ed. S. N. Colamery. Commack, NY: Nova Science, 1998. 147-63.

Emirbayer, Mustafa and Ann Mische. "What Is Agency?"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03.4 (1998): 962-1023.

Fones-Wolf, Elizabeth A. *Selling Free Enterprise: The Business Assault on Labor and Liberalism, 1945-60*. Urbana and Chicago: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1994.

Harrison, Bennett and Barry Bluestone. *The Great U-Turn: Corporate Restructuring and the Polarizing of America*. New York: Basic Books, 1988.

Henderson, Timothy J. *Beyond Borders: A History of Mexican Migration to the United States*. New York: Wiley-Blackwell, 2011.

Henthorn, Cynthia Lee. *From Submarines to Suburbs: Selling a Better America, 1939-1959*. Athens, OH: Ohio University Press, 2006.

Hing, Bill Ong. *Making and Remaking Asian America through Immigration Policy, 1850-1990*.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3.

Hurh, Won Moo. *Comparative Study of Korean Immigrants in the United States: A Typological Approach*. San Francisco: R and E Research Associates, 1977.

_____. *Assimilation of the Korean Minority in the United States*. Elkins Park, PA: Philip Jaisohn Memorial Foundation, 1977.

Kijakazi, Kilolo. *African-American Economic Development and Small Business Ownership*. New York: Garland, 1997.

Kim, David S. and Charles Choy Wong. "Business Development in Koreatown, Los Angeles." *The Korean Diaspora: Historical and Sociological Studies of Korean Immigration and Assimilation in North America*. Ed. Hyung-chan Kim. Santa Barbara, CA: ABC-Clio, 1977. 229-45.

Kim, Eun-Young. "Assimilation Patterns of Koreans in the United States." *Center for Migration Studies Special Issues* 5.2 (1987): 144-58.

Kim, Hyun Sook and Pyong Gap Min. "The Post-1965 Korean Immigrants: Their Characteristics and Settlement Patterns." *Korea Journal of Population and Development* 21.2 (1992): 121-43.

Kim, Hyung-A. *Korea's Development under Park Chung Hee: Rapid Industrialization, 1961-79*. New York: Routledge Curzon, 2004.

Kim, Illsoo. *New Urban Immigrants: The Korean Community in New York*.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1.

_____. "Korea and East Asia: Premigration Factors and U.S. Immigration Policy." *Pacific Bridges: The New Immigration from Asia and the Pacific Islands*. Ed. James T. Fawcett and Benjamin V. Carino. Staten Islands, NY: Center for Migration Studies, 1987. 327-46.

Kim, Jodi. *Ends of Empire: Asian American Critique and the Cold War*.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2010.

Kim, Kwang Chung and Shin Kim. "The Multiracial Nature of Los Angeles Unrest in 1992." *Koreans in the Hood: Conflict with African Americans*. Ed. Kwang Chung Kim.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99. 17-38.

Koo, Hagen. "Small Entrepreneurship in a Developing Society: Patterns of Labor Absorption and Social Mobility." *Social Forces* 54.4 (1976): 775-87.

Koreatown January 21, 1980. K. W. (Kyung Won) Lee Papers, D-251, Department of Special Collections, University of California Library, Davis, California. Retrieved August 8, 2008 from the Online Archive of California.

Lee, Jae-Bong. "Cultural Representation of Anti-Americanism: The Negative

Images of the United States in South Korean Literature and Arts, 1945-1994." Diss. University of Hawaii, 1994.

Lee, Namhee. *The Making of Minjung: Democracy and the Politics of Representation in South Korea*.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2007.

Lie, John. *Han Unbound: The Political Economy of South Korea*.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8.

Light, Ivan and Edna Bonacich. *Immigrant Entrepreneurs: Koreans in Los Angeles, 1965-1982*.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1 [1988].

Light, Ivan, Im Jung Kwuon, and Deng Zhong. "Korean Rotating Credit Associations in Los Angeles." *Amerasia Journal* 16.1 (1990): 35-54.

Lim, In-Sook. "Korean Immigrant Women's Challenge to Gender Inequality at Home: The Interplay of Economic Resources, Gender, and Family." *Gender and Society* 11.1 (1997): 31-51.

Lopez, David E., Eric Popkin, and Edward Telles. "Central Americans: At the Bottom, Struggling to Get Ahead." *Ethnic Los Angeles*. Ed. Roger Waldinger and Mehdi Bozorgmehr.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1996. 279-304.

Min, Pyong Gap. *Caught in the Middle: Korean Communities in New York and Los Angeles*.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6.

_____. "Korean Americans." *Asian Americans: Contemporary Trends and Issues*. Ed. Pyong Gap Min. Thousand Oaks, CA: Sage, 1995. 199-231.

_____. "Korean Immigrants in Los Angeles." Paper presented at the Conference on California Immigrants in World Perspective,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1989-1990). Retrieved April 21, 2008 from http://repositories.cdlib.org/issr/volume5/2.

_____. "From White-Collar Occupations to Small Business: Korean Immigrants' Occupational Adjustment." *Sociological Quarterly* 25.3 (1984): 333-52.

Moon, Chung-in, Byung-joon Jun. "Modernization Strategy: Ideas and Influences." *The Park Chung Hee Era: The Transformation of South*

Korea. Ed. Byung-Kook Kim and Ezra F. Vogel.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2011. 115-39.

Nopper, Tamara K. "Beyond the Bootstrap: How Korean Banks and U.S. Government Institutions Contribute to Korean Immigrant Entrepreneurship in the United States." Diss. Temple University, 2008.

Park, Kyeyoung. *The Korean American Dream: Immigrants and Small Business in New York City*.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97.

Patterson, Wayne. *The Ilse: First-Generation Korean Immigrants in Hawaii, 1903-1973*.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and Center for Korean Studies, 2000.

Reimers, David M. *Still the Golden Door: The Third World Comes to America*.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5.

Shakur, Sanyika. *Monster: The Autobiography of an L.A. Gang Member*. New York: Atlantic Monthly Press, 1993.

Shin, Eui Hang and Kyung-Sup Chang. "Peripherization of Immigrant Professionals: Korean Physicians in the United States."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22.4 (1988): 609-626.

Takaki, Ronald. *Strangers from a Different Shore: A History of Asian Americans*. Boston: Little, Brown and Company, 1998 [1989].

United States Commission on Civil Rights. *The Economic Status of Americans of Asian Descent: An Exploratory Investigation*. Washington, DC: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88.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Western District of Missouri. "Petition of Easurk Emsen Charr." *Federal Reporter* 273 (1921): 207-214.

Wall, Wendy L. *Inventing the "American Way": The Politics of Consensus from the New Deal to the Civil Rights Movement*.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8.

Yoon, In-Jin. *On My Own: Korean Businesses and Race Relations in America*.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7.

_____. *The Social Origins of Korean Immigration to the United States from 1965 to the Present*. Honolulu: East-West Center, 1993.

Yuh, Ji-Yeon. "Imagined Community: Sisterhood and Resistance among Korean Military Brides in America, 1950-1996." *Asian/Pacific Islander*

American Women: A Historical Anthology. Ed. Shirley Hune and Gail M. Nomura.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2003. 221-236.

■ 논문 투고일자: 2016. 10. 24
■ 심사 완료일자: 2016. 11. 10
■ 게재 확정일자: 2016. 11. 23

Abstract

"*Nasŏng-e Kamyŏn*": Korean Americans and Small Businesses in Los Angeles

Chanhaeng Lee
(Sungkyunkwan University)

By using Korean immigrant community in Los Angeles as a case study, this article examines why urban middle-class Koreans immigrated to the United States since 1965 as well as why and how they became small business owners. When the middle-class Korean immigrants found themselves disadvantaged in the American labor market, they tried to survive by starting small businesses. It suggests how those immigrants understood, responded to, and negotiated with their new environment. However, most research on Korean Americans has tended to place disproportionate emphasis on internal resources such as Korean ethnic banks and "keys" to explain the reason for their dominance in the area of small business. While many of the Korean immigrants utilized these internal resources, this article argues that they were also assisted by external resources from the U.S. government and financial institutions.

Key Words
로스앤젤레스 한인(Korean Americans in Los Angeles),
로스앤젤레스 코리아타운(Los Angeles Koreatown),
소규모 자영업(self-employment in small business),
불이익 테제(disadvantage thesis), 모델 마이너리티 신화(model minority myth)